

칠량농공단지 텅텅 비었는데 제2단지라니...

강진군, 미분양 불구 추진... 주민들 토지수용 반발

1단지 입주업체에 막대한 보조금 지원 비난도

강진군이 칠량면에 조성한 칠량 제1농공단지의 미분양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2농공단지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2농공단지 부지 내 주민들은 토지수용 반대 등을 주장하고 나서며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군은 또 제1농공단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보조금만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칠량면 송로리에 수산전문 농공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부지 10만6295㎡에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제1농공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한 데 그쳐 입주율이 40%에 머물고 있다.

11개 업체 중 8곳은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입주했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이거나 영업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일각에서

는 군의 마구잡이식 업체 유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들 8개 업체에 전체 투자액 중 60%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 업체당 건물 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 명목으로 6억~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군은 높은 지원금액에 비해 업체들에 대한 사전검증이 허술했다

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군이 지난해 출항기업인 (주)한조에 4만1000㎡의 부지를 21억 1900만원에 분양하면서 입주보조금 5억원과 토지구입 보조금 4억원 등 모두 9억원의 지원을 했으나 회사 측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작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전체 면적의 5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수산물전문 농공단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군의 부분별한 기업 유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제1농공단지 인근에 제2농공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제2농공단지 인근 3개 마을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농민들의 생명줄인 농지를 잠식하고 농공단지 내 오수관이 구름마을 양식장과 연결되면서 어장이 황폐화된다”며 제2농

공단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 박모(65)씨는 “제1농공단지 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데, 바로 옆에도 두 번째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취지에도 어긋난 공장들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칠량 제2농공단지는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6만1700㎡ 규모로 군비 99억원 등 135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수산물, 자동차부품, 식료품제조 등 15개 업체가 들어선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한의약 산업화 연구 탄력

전남한방산업진흥원, 하원 제약 연구소 유치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진흥원 내에 (주)하원 제약(대표이사 구대호) 기업 부설 중앙연구소를 유치해 개소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주)하원 제약 연구소 이전을 계기로 전남지역 약용자원을 활용한 천연연료 신약 개발 등 전남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한약 약효성분의 체내 거동을 규명하는 ‘한약체제 약효표준화 사업(2011~2014년, 40억원·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주)하원 제약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협조 치료제 개발에 관한 위탁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희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은 “한약의 과학화에 대한 요구, 나고야



의정서 등 전남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약기업과 협력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왔다”며 “전남지역 약용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 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하원 제약은 1981년 설립, 전문 의약품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의약품 수출하는 등 연매출이 650억원을 넘는 중견 제약기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 한방 어린이교실

학부모들에 큰 인기

담양군이 성장기 아동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집중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한방 어린이 성장교실’이 참여 아동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담양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부터 운영 중인 성장교실은 다음달 22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담양의 예텐어린이집과 우리네어린이집의 6~7세 아동 129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다.

한방 어린이 성장교실은 한의사와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어린이 요가, 성장 지압법, 복식호흡을 통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zg@kwangju.co.kr



애기단풍 인기 좋네

지난 1일부터 3일간 열린 제17회 장성백양단풍축제에 전국에서 20만명이 넘는 구름인파가 몰려 백양산 애기단풍의 향연을 맞았다. 군은 이번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 큰 인기를 누려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장성군 제공)

전북

전북도의회, 日 가고시마 의회와 교류재개

전북도의회가 5년만에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의회와의 교류를 재개했다.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5박6일간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石川)현을 방문,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가고시마현 의회 방문은 지난 2008년 9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속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중단된 지 5년여만이다.

의장단 일행 10여명은 5박6일간의 일정에서 가고시마현 의회와는 ‘중단된 우호교류 재개’를, 이시카와현 의회와는 ‘우호교류협약서 조인식’을

추진했다. 특히 전북도의회와 가고시마현 의회는 앞으로 양국 간의 정치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방 간 교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가고시마현 의회가 2015년에는 전북도를 방문하고, 전북도의회에는 2017년에 다시 가고시마현을 찾기로 했다.

최 의장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지방의회와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지역외교를 활성화한다면 양국간 갈등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농특산물 직판장 ‘대박났네’

복잡한 유통단계 생략 생산자 판매방식 운영

장류축제 4일간 2000만원 매출 관광명소로

지난달 28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 개장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이 8일째가 되면서 대박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완주군 로컬푸드 운영방식을 토대로 순창식 로컬푸드에 접목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생략한 생산자 판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8일 동안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매장을 찾아 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류축제기간(10월31일~11월3일) 동안 2000만원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예로 사할이었던 화장실과 생수판매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관광객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소포장과 라벨 부착, 진열, 재고관리까지 농가 스스로 운영하는 각 농가들의 개인매장”이라며 “군은 대금 결제 부분을 전담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추후 직판장의 판매 분석을 통해 농가들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 전반적인 농가수익 향상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

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에 출하를 원하는 순창군민은 누구나 직판장에 방문해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출하자 등록을 마친 후 소포장과 라벨을 부착한 후 진열하면 된다.

판매관리와 대금결제는 매달 2차례 수수료(10%)를 제외한 금액이 출하자 계좌로 입금처리되며, 현재와 같이 인기가 계속될 경우 월 매출 5000만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민들 사이에서 농특산물 직판장 개장이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판장 내에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도록 지역농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품질쌀 김광수·원에특작 김동일씨

남원 농업인대상 6명 선정

남원시는 4일 “최근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남원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2013년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대상 6개부문 수상자는 고품질쌀 부문에 송동면 김광수(47)씨, 원에특작 부문에 금지면 김동일(50)씨, 과수 부문에 인월면 오윤석(57)씨, 축산 부문에 이백면 안길찬(48)씨, 임업 부문에 대강면 임영춘(67)씨, 농산물수출·유통 부문에 운봉읍 유경우(48)씨 등 6명이다.

수상자는 지난 1일 남원시 농업인대상 선정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남원시 농업인대상은 농업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고소득을 창출한 선도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기전작은 물론 권익 향상과 남원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앙 및 전라북도 농업 관련 각종 수상 후보자 우선 추천, 국내외 연수 시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상은 오는 11일 남원시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가질 예정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우리가 최고 라인댄스

지난 3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고창군수배 전국라인댄스대회에 출전한 팀이 멋진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에는 고창의 진짜배기팀이 선정됐다.

(고창군 제공)

단신

고양 주민, 남원 광한루원·문화유적지 관람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동장 유병도) 주민 40명은 지난 2일 자매결연인 남원시 아영면(면장 황종연)을 찾아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문화유적지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아영면사무소에서 방문 환영 행사와 농산물 구입, 지리산 등 남원관광과 남원의 대

표 음식인 추어탕 맛보기로 이어졌다. 아영면과 창릉동은 지난 5월 7일 도·농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호 교류하고 있다. 황종연 아영면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영면과 창릉동 주민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시 보건소, 지리산서 ‘건강걷기’ 행사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 2일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 ‘내가 먼저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소 직원 50여명은 지리산 둘레길 4코스(11Km)를 걸은 뒤 전주시내 전주천변에서 한옥마을 둘레길까지 걸으며 “앞으로도 직판장 내에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도록 지역농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에 의하면 빠른 걸음으로 걷기운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75분인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 수명이 1.8년 긴 것으로 연구됐다”면서 걷기운동을 권장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지적장애인 여성 주거환경 개선

정읍시는 4일 “최근 정읍지역자활센터, 정읍시주거복지센터,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태인제일교회 등으로 부터 사업비 6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 간암으로 남편을 여읜 뒤 자녀 3명과 함께 살았으나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자녀를 모두 조부모에게 보내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시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붕과 보일러를 수리하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줬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도, 중앙공모 8개사업 선정 159억 확보

전북도는 4일 “10월중 중앙공모에서 8개 사업에 선정돼 159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85억원), 과장 분산형 X선 형광분석장치 개발(21억원), 산림소득사업(13억원) 등이다. 이를 들어 10월까지 전북도가 중앙공

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은 총 103개 사업에 2357억원으로 늘었다. 전북도 황철호 예산담당관은 “전년도보다 중앙공모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면서 “전북도가 공모사업 발굴과 경쟁에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